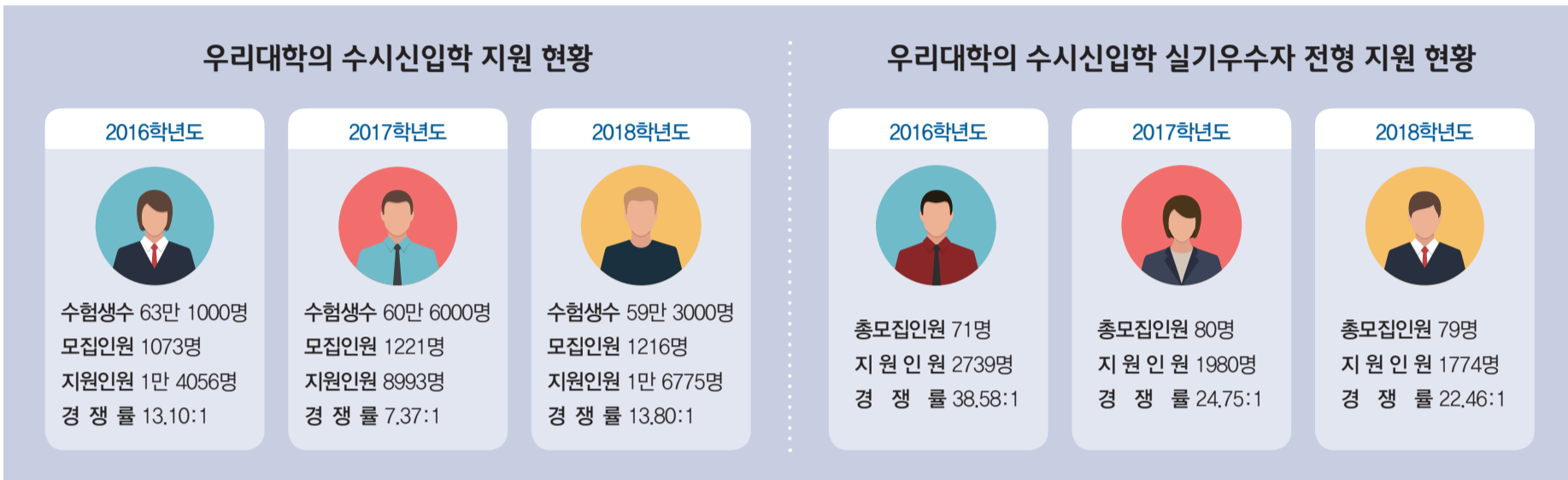


적성고사 부활, 수시입학 지원인원 급증

실기우수자 전형 지원자는 꾸준히 감소 추세



올해 우리대학의 수시입학 지원 인원이 최근 3년 대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8학년도 지원인원은 1만 6775명으로, 이는 작년 2017학년도 지원인원 8993명의 절반 이상인 약 54%가 증가한 수치다. 경쟁률도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수치인 13.80 대 1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오진형(입학관리팀) 팀장은 “2016년에 실시되지 않았던 적성고사 전형의 부활과 전년도보다 1.5배 확대 진행한 고교방문 입시 설명회 등의 노력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우리대학의 대학평가 등급이 개선된 것에 힘입어 대학 브랜드 이미지가 상승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리대학의 수시입학 지원인원이 꾸준히 증가해온 것은 아니다. 오히려 2017학년도 수시모집 지원인원 비율은 최근 3년 중 최저치인 8993명을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민우(입학관리팀) 과장은 “2016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총 지원인원의 47%가량을 차지했던 적성우수자 전형이 2017학년도에 폐지됐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한 그는 “우리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 적성고사 전형에 지원하면서 다른 수시입학 전형에도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적성고사 전형을

폐지하면서 타 전형의 지원인원까지 감소한 것이 이유”라고 전했다. 그리고 2017학년도 수시모집 때 적성고사 전형이 폐지된 이유에 대해서는 “사교육비 증가가 우려되는 전형을 축소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 위주로 선발을 확대하라는 교육부 요구에 따랐기 때문”이라고 알렸다. 덧붙여 그는 “대학등급 개선과 학부 개편 안정화가 이루어졌고, 적성고사 출제 형식이 수능과 유사해 사교육 시장 확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져 2018학년도부터 적성고사를 재시행하게 됐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우리대학 수시

모집 전형 중 적성우수자 전형 외에도 신설되거나 폐지된 전형들이 있었다. 변화가 있었던 전형들을 제외하고 보면, 2016학년도부터 2018학년도까지 실기우수자 전형 지원인원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2016학년도에는 2739명이 지원했지만, 3년 만에 약 1천 명이 감소한 1774명이 수시지원을 마쳤다. 이는 모집인원 수의 변화를 고려하더라도, 타 전형에 비해 감소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 전 과장은 “전체 수험자 수가 감소하면서 실기를 준비하는 학생 수 또한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원인을 말했다.

수시지원이 마감된 현재, 우리대학은 정시 모집 시작과 ‘트랙제’라는 새로운 학사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그는 “자율전공개념인 상상력인재학부의 장점이 수험생들에게 알려지고, 작년에 입학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면, 수시 지원인원이 늘어난 것처럼 정시 지원 경쟁률도 향상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를 통한 대학 브랜드 이미지가 상승효과가 편입학 지원인원 확대에 이어질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은강 기자
dbdmsrkd73@naver.com

지면안내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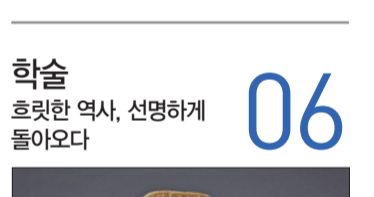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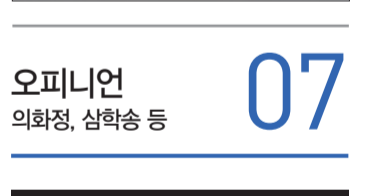
04



05



06



07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진행

학술정보관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에서 주관한 2017년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운영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 이에 대해 광동화(학술정보관) 팀장은 “전년도에는 ‘자유학기제’ 부문 운영기관으로 선정됐고, 올해는 ‘찾아가는 길 위의 인문학’ 부문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찾아가는 길 위의 인문학’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중 하나로, 지역주민에게 인문학 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술정보관이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학술정보관은 ‘도서관과 함께하는 영동한 과학자의 꿈’이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강연, 탐방 등의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각각의 활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하는 인문학적 융합능력을 키울 수 있는 활동, 학생들의 진로 탐색 활동 등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이미 지난 달 28일에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공학경진대회 견학을 우리학교에서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에는 한성여자중학교(이하 한성여중) 학생들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대학생들이 직접 만든 로봇, 드론, 가상현실 등 관련 공학 작품을 체험했으며, 대회에 참여한 대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며 대학 생활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다.

견학에 참여한 한성여중 학생은 “다양한

전시물을 견학하는 시간을 가져 유익했으며,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재밌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학술정보관은 이번 달 28일에 허송이(서울시립과학관) 학예사와 함께 서울시립과학관을 탐방하고 체험하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같은 날 유정숙(서울시립과학관) 학예사가 ‘인공지능, 로봇과 함께 사는 미래’라는 주제로 청중과 소통한다. 이와 더불어 이날 1일에는 이규란 진로상담전문가가 ‘우리가 맞이할 미래와 나의 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며, 15일에도 이지는 진로상담전문가의 강연 ‘인문학적 상상력이 넘치는 미래의 과학자’가 준비돼 있다.

과 팀장은 “예정된 활동들의 참여 대상은 성북구 내 교육복지대상자, 다문화가정의 초등학생·중학생·학부모다. 각각의 프로그램은 참가 대상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아직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학술정보관은 그동안 지역사회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를 수행해 왔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학교는 지역 내 여러 기관과 협력해 더 많은 지역 주민과 소통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김수현 기자
kshkajasa@naver.com

한성재단, 신설동 교보빌딩 인수

10월 16일, 우리학교 재단인 한성학원은 교보그룹 산하의 교보교육재단, 대산문화재단, 대산농촌재단(이하 교보재단)으로부터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교보빌딩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전장배(법인사무국) 국장에 따르면 이날 한성법인은 교보재단과 잔금 처리, 소유권 이전 선포 등의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오는 27일 오후 4시경 한성빌딩 앞에서 제17-5차 이사회 겸 기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사전에 구청 승인이 나지 않을 시 구청 회의실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유권이 이전됨으로써 교보빌딩은 한성빌딩으로 이름이 바뀌게 된다.

한성빌딩은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에 위치한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의 상업 목적의 건물로, 지하철 1·2호선 신설동역과 우이신설 신철동역 사이에 있다. 이 빌딩에는 파리바게트, 비제에프리테일(CU) 편의점 등의 편의시설과 광주은행, 롯데카드, 신한카드 등의 금융회사가 입주해 있다. 이와 더불어 전 국장은 현재 남아있는 공실에 대해 “입주를 위해 삼성화재와 교섭 중”이라고 밝혔다. 한성빌딩은 앞으로 교보그룹의 자회사인 교보리얼로가 위탁·관리할 예정이다.

한성빌딩을 매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 전 국장은 “작년까지는 한성농장을 처분해 얻은 보증금 370억 원을 예금계좌에 예치해

그 이자로 법인부담금을 충당해왔다. 그러나 최근 이자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이자 수익이 감소했고, 이에 따라 법인 재정 안정화를 위해 수익형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법인부담금은 교내 교직원들의 사학연금, 국민건강보험 납부액 등의 지출을 말한다. 이어 그는 “2013년부터 수익형 부동산을 꾸준히 모색해 왔지만, 이사진 간의 이견으로 인해 최근에서야 빌딩을 매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빌딩 매입을 계기로 법인은 월 1억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우리 대학이 요구했던 7억 원의 법인부담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줄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성학원은 지난 7월 11일 교보재단과 교보빌딩을 매매하기로 계약한 바 있다. 이렇게 소유권 이전에 시일이 걸린 것에 대해 전 국장은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교보재단과 한성학원은 서로 관련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교보재단 측도 빌딩 매각 후 새로운 부동산을 모색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으므로 실제 소유권 이전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 임대사업을 잘 운영해 학교와 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법인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희승 기자
yoonihg@gmail.com

기자사령

임수습기자 윤희승(행정 2) 장동화(행정 1)
면정기자 이혜민(패션 1)



'개교 45주년 행사' 개최 장기근속자 포상도 진행돼...

지난 10월 11일, 미래관 DLC에서 개교 45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이번 기념식은 추석연휴로 인해 개교기념일인 5일보다 늦은 11일에 열렸다. 행사는 개식사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장기근속자 포상, 기념사, 폐식사 순으로 이어졌다. 행사에는 이종훈 이사장과 이상한 총장을 비롯한 교직원과 학생 80여 명이 참석했다. 개식사에 이어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한 포상식이 진행됐다. 10년 근속포상자는 ▲조규태(역사문화학부) 입학홍보처장 ▲이형용(경영학부) 학생처장 ▲최강화(경영학부) 교수 ▲백성준(부동산학과) 교수 등 10명이었으며, 조규태 처장이 대표로 수상했다. 20년 근속포상자는 ▲박준철(역사문화학부)

교수 ▲정현이(회화과) 교수 ▲신민철(경영학부) 교수 ▲전종찬(융복합디자인학부) 교수 등 교수 11명과 ▲조중집(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 팀장 등 직원 5명이었으며, 정현이 교수와 조중집 팀장이 대표로 수상했다. 20년 근속 포상을 받은 정현이 교수는 "20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 것 같다"며 "교내에서 처음 학회를 열었을 때나 외국인 교수를 초빙하려 했을 때, 선례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다. 학내 구성원을 설득해 예산 지원을 받으려고 항상 애써왔다"고 회상했다. 또한, 그는 "학교에 근무하는 동안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것에 보람을 느낀다.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근

무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진 기념사에서 이종훈 이사장은 "오늘날 한성학원은 한성대학의 비약적인 발전이 가져온 결과라고 생각한다. 한성대학의 성장은 여러 교직원들과 동문들의 끊임없는 애정과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앞으로도 대학 발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서로 협력하며 나아간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잘 극복해 나갈 것이다. 대학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상한 총장은 "그동안 대학의 성장은 한성가족의 지대한 노력과 지역사회의 상당한 후원을 받아서 이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러한 발전이 순탄하게

이뤄진 것만은 아니다. 아직도 넘어야 할 고비가 있다. 현재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준비를 차분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구성원들의 많은 도움과 노력 덕분에 재정건전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2~3년 안에 우리가 기금을 쓰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이 총장은 "학교 발전은 일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명문대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만찬을 마지막으로 종료됐다.

정동화 기자 amor929@naver.com

#한성 #타임라인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미용대회 수상

지난 9월 19일, 우리학교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학생들이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3회 서울특별시장배 미용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수상한 학생들은 총 16명으로 ▲대상 2명 ▲금상 3명 ▲은상 6명 ▲동상 4명 ▲장려상 1명이다. 이번 대회는 학생부와 일반부로 나눠 치러졌으며, 헤어·헤어스케이치·메이크업·피부 등 4개 부문, 92개 종목에 700여 명이 출전했다.

학생들을 지도한 권오혁(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교수는 "우리 학과는 현장실무 위주의 미용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이번년도에 신설됐다. 2학기 개강 후 바로 대회가 있어 준비할 시간이 촉박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심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도전해 준 학생들이 대단스럽다. 이번 대회 수상을 계기로 우리 학교가 더욱 도약할 것"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 살롱 업스타일 부문 대상을 수상한 최상아(뷰티 1) 학생은 "갑자기 준비하느라 연습을 하면서도 불안했지만, 지도교수님이 많은 도움을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소감을 밝혔다.

박아름 기자 parkaahreum@gmail.com

'상상력인재학부의 소셜데이' 열려

지난 9월 26일, 상상력인재학부가 '상상력인재학부의 소셜데이(이하 소셜데이)'를 개최했다. 소셜데이는 상상력인재학부 학생들의 트랙 선택에 도움을 주고 학생과 선배 간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개최한 행사다. 이번 행사는 진로적성검사와 '상상력 썸머 투게더' 공모전 시상식, 제3회 상상력 토크, 특성화 트랙 소개 및 Q&A, 학생·교수 간 교류 순으로 진행됐다.

'상상력 썸머 투게더' 공모전은 지난 여름방학 동안 진행한 모임활동 기획전략 공모전이다. 이날 시상식에서 '주마등'팀 외 네 팀이 수상했다.

제3회 상상력 토크는 지난 1학기에 실시한 상상력 토크 1·2회의 연장선이다. 앞선 토크는 각각 '상상력 교육의 모순과 가능성', '경쟁력 있는 청년이 되려면'이라는 주제로 꾸며졌으며, 이번 토크는 '현실과 꿈을 결정하는 것'을 주제로 교회영 영화감독이 진행했다.

이후 본교가 추진 중인 '메이커톤 기반 IT-디자인 융합교육'과 '도사재생 특성화 융합교육'에 대해 소개하고 질문을 받는 시간도 가졌다. 실내행사가 종료된 후에는 낙산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학생과 교수가 함께 식사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서은경 상상력인재학부 학장은 "상상력인재학부 전체가 함께할 기회가 많았기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소셜데이의 목적은 우리 학부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강예림 기자 kyr_0728@hansung.ac.kr

제13회 한성대학교 공학경진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낙산관 체육관에서 제13회 한성대학교 공학경진대회가 열렸다. 본 대회는 '문제해결능력과 창의성을 갖춘 공학인을 양성한다'는 공과대학 교육목표를 실현하고자 매년 개최되고 있다. 본선에 앞서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전모집이 진행됐다. 공과대 학생들이 지도교수와 함께 연구·개발해 제출한 총 33개 작품이 본선에 진출했다.

28일에는 개회식과 다과회가 열렸다. 개회식에서 이종훈 이사장은 "참가한 학생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29일에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대상 1팀 ▲금상 2팀 ▲은상 6팀 ▲동상 8팀 ▲장려상 10팀이 영광을 안았으며, ▲H20시스템상 ▲한국가본상 ▲메가투스상 ▲대립엔컴상 ▲셈웨어상도 각각 1팀씩 수상했다. 이 중 '라즈베리파이를 이용한 증강현실 RC기'를 개발한 김바다(IT응용 4), 오예란(IT응용 4), 우석(IT응용 4), 원태연(IT응용 4) 학생이 대상을 수상했다. 지도교수는 지준(IT응용시스템공학) 교수다.

이번 대회를 주최한 이재문(컴퓨터공학부) 공과대학장은 "앞으로도 한성대학교 IT 공과대학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박금정 기자 rma0418@hansung.ac.kr

한글날 기념 학술대회 가져

지난 10월 12일, 국립한글박물관 강당에서 '한국인의 삶에 나타난 한글 사용의 사회 경제적 가치'를 주제로 한글날 기념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이 대회에서는 우리대학 이상혁·권정현·김귀옥·홍순영 교수와 타 대학 교수들이 참석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이 대회는 '한글 문화, 지식 교류의 틀을 바꾸다', '한글 문화, 이야기 유통의 틀을 바꾸다', '외국인의 한글 사용 효용 및 인식 설문조사', '한글 사용, 사회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다', '신문 기사를 통해 본 한글의 사회 문화적 가치 100년'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주제별로 각

교수들이 발표 혹은 토론을 진행해 한글의 우수성과 영향력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상혁(사고와 표현 교육과정) 교수는 "그동안 한글의 우수성을 관념적으로 살펴보는 경우가 많았지만, 실제로 사회·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볼 필요를 느꼈다"며 "외국인의 입장에서 바라본 한글 문화에 대해서도 알아보려 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 대회를 통해 "한글이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문자'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유은경 기자 dbdmsrkd73@naver.com



▲ 지난 10월 12일, 국립한글박물관 강당에서 '한글 문화, 이야기 유통의 틀을 바꾸다'를 주제로 우리대학의 이상혁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한성대학교는
진리(眞理)·지선(至善)이라는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창의적 전문인, 포용적 사회인, 열린 세계인을 양성합니다

교육이념	진리(眞理)·지선(至善)		
교육목적	한성대학교의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공동선(共同善)을 추구하는 창조적 인재를 양성한다.		
교육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성과 융합능력을 지닌 전문인을 육성한다. 공동체 의식과 윤리적 소양을 갖춘 사회인을 육성한다. 열린 사고와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인을 육성한다. 		
인재상	창의적 전문인	포용적 사회인	열린 세계인
역량	창의융합역량 창의력 융합능력	공동체역량 자기관리능력 대인관계능력	글로벌역량 글로벌 소통능력 글로벌 시민의식
비전	서울의 CENTER 상상력 인큐베이터 한성대학교		

동정란

이상우(행정학과) 교수
이 교수는 지난 9월 1일,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 법인이사로 선임됐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대학교에 입학하는 명목으로 신입생이 지불하는 비용, 바로 '입학금'이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신입생에게 등록금 이외의 입학금을 별도로 부과한다. 우리 학교 역시 신입생에게 82만 2000원가량의 입학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입학전형료를 지불하고 대학에 합격해 등록금마저 납부했는데 입학금까지 내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 사립대 285곳의 입학금은 평균 77만 2700원으로 같은 해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 736만 3600원의 10.4%를 차지했다. 한편, 국·공립대의 평균 입학금은 15만 4400원으로 연평균 등록금 412만 1500원 대비 3.7%에 해당한다.

입학금은 그 산정 근거와 집행 내역이 명확하지 않다. 교육부가 실시한 사립대 입학금 실태 조사에 따르면 입학금은 ▲입학 외 일반운영비 33.4% ▲신·편입생 장학금 20.0% ▲홍보비 14.3% ▲입학관련 운영비 14.2% ▲진로·적성검사 등 학생지원경비 8.7% ▲입학식 및 신입생 OT 등 행사비 5.0% ▲기타 3.5% ▲인쇄·출판비 0.9%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입학금이 신입생 행사와 입학 업무라는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됐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수치다.

OECD 34개국 중 대학교 입학금을 징수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 멕시코, 포르투갈뿐이다. 그중 일본만 우리나라처럼 대다수 대학이 등록금의 10% 이상을 입학



▲ 지난 해,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가 고려대학교에서 실시한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 서명운동

금으로 징수하고 있고 멕시코와 포르투갈은 일부 사립대만 입학금을 받고 있다.

이런 사유로 일부 대학생들은 입학금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작년에는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를 필두로 1만여 명의 대학생이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을 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출마 당시, 공약의 하나로 '대학교 입학금 폐지'를 내 걸었다. 이는 문 정부 출범 이후, 5개년 국정운영과제로 선정됐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국 41개 국·공립대가 내년 부터 입학금을 받지 않기로 선언하면서 대학교 입학금 폐지의 첫발을 내딛었다. 이를 토대로 교육부는 사립대 입학금을 폐지하는 데 박차를 가했다.

하지만 사립대 측은 정부가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고 입학전형료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입학금마저 폐지하면 재정난을 겪게 되는 것은 물론, 교육의 질도 저하될 수 있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교육부는 경희대, 대전대, 동국대, 상명대, 순천향대, 우석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제대,

한국외대 등 10개 사립대 기획처장과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해 사립대 입학금 폐지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핵심안건은 입학금 단계적 감축 방식과 입학금 폐지에 따른 재정난 완화 대응 방안이다. 협의회는 두 차례 회의를 통해 6년 또는 8년간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축소 및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사립대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처사다. 또한 교육부는 입학금을 축소 또는 폐지한 사립대학에 ▲국가장학금 II 유형 예산 우선 지원 ▲일반재정 지원 ▲등록금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청년참여연대 이조은 사무국장은 "입학금 단계적 폐지 논의가 아닌 즉시 폐지 논의를 촉구한다"면서 "재정이 열악한 사립대만 정부 지원을 통해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무국장은 "『고등교육법』에서 입학금 징수 근거부터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학금은 1951년 제정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징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사립대의 최근 5년간 부채비율 감소와 기본급 증가를 근거로 폐지를 반대하는 것은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은 오히려 호전되고 있는데, 재정난을 말미암아 입학금 폐지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축소·폐지 방안을 마련·계획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은 영문도 모른 채 그저 학교의 지시대로 입학금을 납부한다. 하지만 그 액수가 결코 적지 않은 만큼,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교육당국, 사립대학의 충분한 협의와 절충이 이뤄져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교육의 질 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강예림 기자

kyr_0728@hansung.ac.kr

생활임금, 넌 누구나

최저임금제는 흔히 알고 있는 제도지만, 생활임금제는 아직까지 생소한 제도다. 이 제도는 최저임금만으로는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근로자들의 실질적 생계 보장을 위해 마련됐으며,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결정하는 주거, 교육, 문화생활을 근로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위치한 성북구에서는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보다 23% 가량 더 높은 9,255원을 생활임금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성북구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모두가 생활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초 성북구청은 2013년 생활임금제 시행 당시 공공부문 직접고용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했다. 공공부문 직접고용 근로자란 해당 구와 재단, 공단 등 출자·출연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다. 이어 구청은 2015년, 공공부문의 용역, 위탁, 하청 등을 수행한 고용업체 소속의 간접고용 근로자를 적용 대상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국가와 시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는 국·시비보조금 대상자까지 범위를 확대시킨 상태다.

생활임금은 1994년 미국 볼티모어의 '빌드(BUILD)'라는 단계가 최대 공무원노조 'AFSCME'와 연대해 생활임금운동을 벌인 후,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생겨났다. 우리나라에서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임금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12년 8월, 참여연대는 성북·노원구에 생활임금제 도입을 제안했고, 2013년 전국 최초 행정명령을 통해 생활임금제를 시행하는데 성공한다. 이어 성북·노원구는 이듬해 법규명령으로 '생활임금조례'를 공포한다. 선 시행했던 생활임금제가 정식으로 제도와

된 것이다.

이렇게 도입된 생활임금제는 현재 전국 243개 광역기초단체 중 74곳에서 시행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임금이 오르면 소비가 촉진되어 경기 활성화가 이뤄지고 일자리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즉, 생활임금제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할 뿐 아니라,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인상과 소비 촉진으로 이어져 경기 구조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활임금제를 민간부문으로 확산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성북구 역시 생활임금제의 민간 확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기업이 생활임금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 중소기업은 생활임금제를 도입해 인건비 지출이 늘어나면 곧, 재정 악화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최저임금을 정부가 아닌 국회가 결정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의 조달,

용역, 공사계약 등에 임금조건을 포함하는 법률도 계류 중이다. 추후 성북구는 생활임금제의 민간부문 확산을 위해 생활임금 기업을 발굴하고, 참여를 독려하며 관내 민간기업 임금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성북구청 장한샘(일자리노동정책팀) 주무관은 "생활임금제의 민간 확산을 위해 정부 및 지방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자체만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현재 계류 중인 법률을 조속히 처리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생활임금제가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박아름 기자

parkaahreum@gmail.com

연도	생활임금		최저임금	적용인원	적용대상
	월 급여	시급			
2013년	1,357,795원	6,490원	4,860원	110명	성북구 및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 재단, 공단
2014년	1,432,492원	6,850원	5,210원	110명	
2015년	1,495,148원	7,150원	5,580원	183명	기존 + 간접고용 확대
2016년	1,585,000원	7,585원	6,030원	269명	기존 + 국시비보조금 대상자 확대
2017년	1,682,000원	8,048원	6,470원	361명	

▲ 성북구 생활임금 적용대상

(자료 제공·성북구청)

모르면 당하고 알면 든든한 法

대나무숲 저격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대학생 A씨는 얼마 전 전공 강의에서 중간과제로 조별발표를 했다. 조장이 된 A씨가 발표 준비를 총괄했지만, 조원들이 성실히 참여하지 않아 결국 A씨 혼자 발표 자료를 만들고 발표까지 해야 했다.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했는데 점수는 똑같이 받는다는 점에 화가 난 A씨는 '대나무숲' 페이지에 익명으로 제보를 했다. 조별 발표과제 준비 시 제대로 참여하지 않은 조원들을 함담하는 내용이였다. 조원들의 이름이나 학과 등 신상정보를 밝히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A씨는 처벌받을 수 있을까?

A씨의 억울한 사정은 이해되지만, 조원들이 A씨를 고소한다면 A씨는 처벌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는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다. 상대방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신상정보가 명시되지 않았어도 문맥상 특정 대상을 연상시킬 만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 만약 A씨가 조원들의 실명을 쓰지 않고 초성만 언급했다고 해도 읽는 사람이 당사자들을 떠올릴 만하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이런 경우 A씨는 그것이 조원들을 저격한 글이 아니라고 끝까지 주장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기소를 한 검사 측에서 A씨의 글을 읽으면 해당 조원들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

그렇다면 A씨의 게시글에 댓글을 단 경우에도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적용될까?

악의적 댓글을 남겨 특정 인물의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를 나쁘게 만들었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온라인법률상담센터인 법률 N 미디어의 장운정 변호사는 "댓글에서 욕을 하는 경우는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실제 사례를 보면 심한 욕설뿐만 아니라 기분이 상할 만한 욕설도 모욕죄가 인정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일반 형법이 적용되는 오프라인에서의 명예훼손과는 별도로 규정을 마련해, 더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온라인에서는 정보의 파급력과 보존성이 특히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욕죄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어디에서든 다른 사람을 공연히 모욕하면 형법상의 모욕죄가 성립한다(형법 제311조). 여기서 '공연'이라는 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불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것이라면 그 사람들이 다수이든 소수이든 상관없고, 다수인이라면 특정한 사람들이든 불특정한 사람들이든 묻지 않는다는 의미다. 따라서 SNS에 공개적으로 글을 게재하면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이 충족된다.

익명의 가명을 쓴다고 해서 특정인물을 공개적으로 비방한 것에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 법이다. 익명이라는 힘에 편승해 SNS에서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직접 대화를 나누며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해보는 것이 어떨까.

강예림 기자 kyr_0728@hansung.ac.kr



'보알못'을 위한 보드게임 설명서

보드게임하면 무엇이 생각나는가? 부루마블, 오목, 윗놀이 정도만 떠오른다면 당신은 보드게임의 '비'도 제대로 모르는 것이다. 사실 보드게임은 '펜 앤 페이퍼(Pen&Paper)' 게임으로 불린다. 말 그대로 종이와 필기구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간단한 게임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확장시절에 짜과 선생님 물레 하던 오목도 보드게임 아니냐'는 의문이 들 것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당신이 이 기사를 읽어야 하는 이유다. 이 글을 다 읽고 나면 당신 역시 보알못(보드게임 알지도 못하는 사람)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가위바위보'로 알아보는 보드게임 레시피

한국IT직업전문학교 게임학과 교수인 전홍식(SF&판타지 도서관) 관장은 "보드



게임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수가 훨씬 많다. 정확한 수를 집계할 수는 없지만, 대략 1만 개의 보드게임이 있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무슨 수로 이 많은 보드 게임을 만들어냈을까? 사실 그건 별로 어렵지 않다. 보드 게임을 만드는 방법은 생각만큼 복잡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 관장의 설명에 따르면, 보드 게임을 만들 때는 단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바로 게임의 규칙과 목표 혹은 주제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다면 누구나 보드 게임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보드 게임을 만들어 낸다는 게 믿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가위바위보'를 한 번 떠올려보자. 바위가 가위를, 가위가 보자기를, 보자기가 바위를 이긴다는 것이 게임 규칙의 전부다. 이 가위바위보 게임에 하나의 규칙을 더해보자. 양손에 각각 다른 모양을 내고, 두 가지 중 게임에서 유리할 것 같은 모양을 사용해 승패를 겨루는 것이다. 벌써 또 다른 게임이 만들어졌다.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자.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로 승부를 겨루는 것에 그치지 않고, 둘 중 이긴 사람에게 공격권을 부여한다. 공격권을 가진 사람이 공격을 할 때, 공격하는 사람과 같은 모양을 내면 지는 것이고, 다른 모양을

내면 이기는 것이다.

이처럼 '가위바위보' 하나를 활용해 두 가지 게임을 더 만들었다. 기존 게임에서 몇 가지 규칙을 더하거나 빼는 방식을 활용하면 보드 게임을 만드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보드게임 선택의 정석 4가지

이쯤되면 '1만 개에 달하는 보드게임 중 어떤 게임을 해야 재미를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전혀 걱정할 것 없다. 보드 게임을 고르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알아볼 4가지 방법을 숙지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선택이 실패할 가능성을 확연히 줄일 수 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내가 협동을 좋아하는지 경쟁을 좋아하는지다. 보드 게임은 크게 협력과 경쟁 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이 중 하나만 골라 선택의 폭을 크게 좁힐 수 있다. 두 번째는 규칙이 단순한지 복잡한지 살펴보는 것이다. 사실 보드 게임 중에는 당신이 알던 부루마블과는 다르게 규칙이 너무 복잡해서 시도해 볼 엄두가 안 나는 것도 있다. 만약 이 점을 간과하고 보드 게임을 무턱대고 샀다가는 창고에 넣어뒀다가 조카에게 고스란히 물려줘야 할 수도 있다. 세 번째는



운의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는 것이다. 보드 게임은 바둑처럼 실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운에 의해서 게임의 판도가 변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평소 운이 따르지 않거나, 실력으로 남을 이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운이 크게 작용하는 게임은 선택지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게임을 진행할 인원이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위의 내용을 숙지해서 게임을 골랐다고 해도, 막상 인원이 모자라거나 넘쳐서 게임 진행을 아예 할 수 없다면 말짱 도루묵이다.

보드 게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게임을 하는 마음가짐이다. 이에 전 관장은 "본래 보드 게임이란 것은 모두가 즐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운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즐길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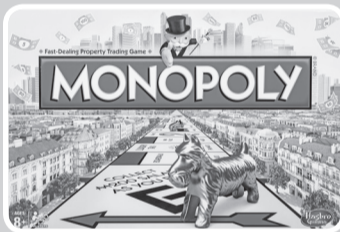
김종민 기자

whdals148@naver.com



김 기자가 전하는 보드게임 추천서

이제 보드 게임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을 잡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보드 게임을 즐겨보자. 기사가 직접 어렵지 않으면서 남들과 재밌게 할 수 있는 보드 게임 4가지를 준비해봤다. 권장 연령과 인원 에 유의하여 설명을 읽고 마음에 드는 보드 게임을 골라보자. 장담컨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것이다.



부루마블의 조상, '모노폴리'

'모노폴리'의 규칙은 매우 간단하다. 많은 땅을 구매해 건물을 세우고 이용료를 받는 것이다. 여기서 신경 써야 할 것은 독점 시스템이다. 같은 색 땅을 한 사람이 독점하면 이용료가 2배로 오른다. 나를 제외한 다른 참가자를 모두 파산시키면 승리한다.

권장 연령 8세 이상
권장 인원 2인 이상



RPG 게임이 테이블 위로! '먼치킨 시리즈'

'먼치킨'은 RPG 게임을 테이블로 옮겨온 TRPG(Table Role Playing Game) 게임이다. 별도의 게임판이 없이 카드로만 진행된다. RPG와 유사하게 캐릭터 카드, 종족 카드, 보물 카드, 몬스터 카드가 있다. 이를 통해 레벨 10을 먼저 달성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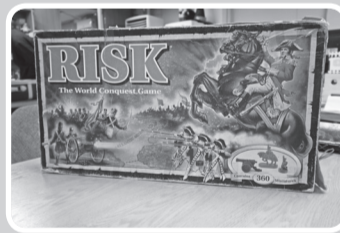
권장 연령 10세 이상
권장 인원 2~8인



너 배신자지? '뱅'

'뱅'은 미국의 서부시대를 배경으로 한 게임이다. 승리 조건도 명확하다. 보안관과 무법자는 배신자와 무법자를 죽여야 하고, 무법자는 보안관만 죽이면 된다. 배신자는 무법자와 무법자를 모두 죽이고 보안관과 11대치 상황이 되면 승리한다.

권장 연령 8세 이상
권장 인원 2~7인



이 땅은 내꺼야! '리스크'

'리스크'는 전쟁을 주제로 한 게임이다. 이 게임의 승리 조건은 상대방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많은 땅을 소유하는 것이다. 한 턴에 모든 상황을 진행하므로, 상대방과의 협력·배신이 아주 중요하다. 다른 게임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권장 연령 12세 이상
권장 인원 2~6인



경복궁에 가려진 예술의 향취

우리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경복궁역. 이곳에 있는 경복궁은 조선시대 왕족을 위해 지어진 것으로 약 5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왕족을 위해 만든 것인 만큼 과거 우리민족의 멋과 예술을 담고 있으며, 조선시대 왕실의 고풍스러움까지 두루 갖추고 있다. 경복궁은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은 들러봤을 법한 곳이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건축물을 관람하기 위해 이곳까지 발걸음을 옮긴다. 하지만 경복궁역 인근에는 경복궁에 가려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들이 있다. 그렇다면 경복궁역에 숨겨진 예술가들의 향취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 경복궁역에서 불과 5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는 이상의 생가가 있다. 이상은 1930년대에 활동했던 문인으로 대표작으로는 '날개'가 있다. 그는 살아생전 천재성을 인정받지는 못했다. 그가 죽은 뒤에야 비로소 그의 작품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상의 생가는 현재까지도 보존되어 있으며, 지금은 '이상의 집'이라고 불린다. 이 장소에서는 당시 이상이 지내던 모습을 엿볼 수 있으며, 이상이 집필했던 소설도 읽어볼 수 있다. 이상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는 또 다른 예술인의 생가가 자리 잡고 있다. 바로 박노수 화백의 생가다. 그는 한국화를 그리던 유명한 화가로 경복궁역 인근에서 거주하다가 2013년에 타계했다. 그가 사망한 후, 그의 생가는 종로구청에 의해 '박노수 미술관'으로 재탄생했다. 비교적 최근까지 박 화백이 기거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그의 흔적을 흠뻑 느낄 수 있다. 또한 미술관에는 그가 그렸던 작품들도 전시돼 있다.

경복궁역에서 15분 정도 발걸음을 옮기면, 조선시대의 명사였던 송강 정철이 살았던 곳을 표시해둔 비석을 만날 수 있다. 다만,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난 탓에 현재 그 집터는 남아 있지 않고, 그 자리에는 초등학교

교가 대신 들어서 있다. 현재로서는 학교 입구에 정철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그의 작품 「관동별곡」이 적힌 비석만이 그곳에 정철이 살았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많은 예술인들이 살았던 탓일까. 근방에 있는 가게들에서도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것은 가게의 외관이다. 보통의 가게들은 문이나 창에 명칭과 영업시간, 메뉴 정도만을 써놓는 경우가 전부다. 그러나 이 인근의 가게들은 이에 더해 시 한 구절을 써놓거나 그림 등을 그려놓고는 한다. 인테리어 또한 1970~1980년대의 모습처럼 담백하게 꾸며 놓아, 보는 이들에게 그 시절만의 독특한 감성을 느끼게 해준다. 앞서 소개한 예술인을 말고도, 이 일대에는 과거부터 안평대군, 추사 김정희, 이상범 화백, 윤동주 시인 등 수많은 예술인들이 거주했고, 그 발자취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비사한 인물들이 한 장소에 살았다는 것은, 어쩌면 이



1 윤동주 시인이 하숙했던 장소. 현재는 리모델링을 거쳐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다. 2 기린교의 모습. 경재 정선이 안평대군의 집터 일대를 그린 작품 '수성동에도 나와 있어' 이 근방이 안평대군의 집터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3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 중 일부. 비석만이 이곳이 정철의 집터였다는 것을 알려준다.

동네에 '예술의 맥'이 흐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 다음에 경복궁역을 방문할 기회가 생긴다면 경복궁을

벗어나 예로부터 전해지는 예술의 향취를 느껴보자.

김종민 기자 whdals148@naver.com

목소리 좋은 그대, 성우해볼 생각 있나?



“성우 학원을 등록한지 2개월만에 경험삼아 성우 공채시험에 도전했어요. 면접에서 ‘아, 이게 내 길이구나’ 하는 결심이 서더라고요.” 비록 첫 번째 공채시험 결과는 탈락이었지만, 그의 도전은 완전히 실패하지는 않았다. TV에서, 라디오에서, 우리가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동과 높동 주민들은 중립동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tvN에서 방영하는 리얼버라이어티 프로그램 <소사이어티 게임 2>의 주최자이자 진행자인 정세진 성우를 만났다.

Q. 성우를 하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다

A. 인생을 영화처럼 살고 싶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하면 평범하지 않고, 하고 싶어 미치겠는 일을 찾아 노력할 수 있을까. 초등학교 시절 일기부터 찾아 읽으면서 그동안 어떤 직업을 생각했는지 지난 꿈들을 적어보고, 나열한 직업의 공통점과 그 이유를 생각해봤다. 주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일이었다. 내가 국문학과 전공자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나열해보니 기자, 작가, 가수, 작사가, 방송 PD 등 글과 말을 다루는 일이 많았다. 그중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 고민하며 교수님과 상담하던 중, 교수님이 학원이라고 다녀보라고 조언을 해주셨다. 그래서 가장 저렴한 성우학원을 선택해 다니게 됐다.

Q. 주위 반응은 어땠나. 성우를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었을텐데

A. 성우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을 때 주변 반응은 반반이었다. 사회 진출이 늦은 편이다 보니 “정신 차리라”고 말한 친구도 있었고, 부모님의 반대도 심했다. 성우 준비와 학업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었다. 하지만 학년 말이 되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니 부럽다”고 말하는 후배들이 많아졌다. 성우를 준비하는 동안 환경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어떻게든 내 환경부터 바꾸려고 노력했다. 무언가를 위해서

준비하는 지망생들, 꿈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을 알아봤다. 인디 가수, 작곡가, 연기자, 아나운서, 기자 지망생 등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프로의 마음으로 준비하는 사람들로 주변을 채워갔다. 자극을 많이 받았다.

Q. 성우를 뽑을 때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A. 성우는 연기력과 타고난 목소리가 모두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단순히 타고난 목소리만으로 별다른 연습을 하지 않고도 붙는 경우가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연기력은 좋지만 목소리가 경쟁력이 없어서 붙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타고난 목소리를 이기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외에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타이밍이다. 보통 운때가 맞아야 한다고 얘기한다. 방송사에서는 전속 성우를 뽑을 때 기준에 없는 캐릭터, 목소리 톤이 겹치지 않는 사람들을 뽑는다. 내가 지원하는 그 해에 이미 나와 비슷한 목소리를 지닌 사람이 방송사에 있으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뽑히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어떤 해에는 내가 잘 못해도 방송사에 나와 비슷한 목소리를 지닌 성우가 없으면 뽑힐 확률이 높다.

Q. 성우도 학벌을 보는지

A. 전혀. 고졸 이상, 군필 여부 등 기본적인 조건만 충족시키면 된다. 예전에는 학력이 높아야 했다고 하더라. 성우가 연기력이 중요하더라. 현재 선생님급 성우분들은 보통 연극영화과 출신이 많다.

Q. 평소 목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A. 물을 많이 마신다. 목에 이상이 생기면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약 처방을 받는다. 목이나 코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금주를 한다. 성대가 약한 편이 아니라 목 관리를 특별히 하는 편은

아니다. 물 대신 레몬차, 동글레차를 마시는 성우들도 많다. 소금물로 gargling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Q. 성우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팁은

A. 성우지망생들이 모인 모임을 알아봤다. 모여서 애니메이션이나 광고, 영화 등에 더빙을 해보고, 내레이션을 넣어보았다. 더빙한 영상을 SNS에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올렸더니, 그것을 보고 섭외 연락이 온 적도 있다. 공부할 시간이 없을 때는 글을 소리 내서 읽는 습관을 길렀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공부거리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사람의 성격, 행동, 말투를 분석하는 것이 모두 공부다. 사람들을 많이 관찰하고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된다. 그 과정이 성우가 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Q. 성우의 전망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어떻게 생각하나

A. 많이 생각해 봤다. 인공지능, 로봇 등의 기술 발달로 미래에 없어질 직업, 미래에 생겨날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다 보면, 당연히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은 안전한가에 대해 계속 생각해게 되는 것 같다. 최근 구글에서 사람 목소리를 흉내 낼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다는 기사를 봤다. 목소리 샘플을 활용해 목소리를 따라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이 지닌 감성을 그대로 재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사람의 감성으로 인해 달라지는 톤 변화와 표현력은 인공지능 로봇이 따라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애니메이션 저성장국가이지만, 웹툰 시장이 성장하면서 앞으로 애니메이션 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성우 시장 또한 성장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내레이션이 나오는 영화가

별로 없다. 3인칭 내레이터가 내레이션을 하는 방식의 영화를 꾸준히 제작하다 보면 성우의 입지도 커질 것이다. 또, 우리나라는 게임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 성우로서도 전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Q. 어떤 성우로 기억되고 싶나

A. 사회에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좋은 성우가 되려면 온전히 나를 비우고 역할에 몰입해야 한다”는 그의 말처럼 성우는 어떠한 상황도 받아들이고, 새로운 역할에 도전하는 자신감과 용기를 지녀야 한다. 자신의 목소리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다. 무슨 일이든 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 직접 접하면서 자신이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는 정세진 성우처럼 일단 도전해보라.

박금정 기자 rma0418@hansung.ac.kr



▲ 정세진 성우가 진행하는 <소사이어티 게임 2> 프로그램

(출처: tvN)

대회일정

접 수 | 10월 23일(월)~11월 10일(금, 18:00까지)
예 선 | 11월 16일(목) 오후 5~7시
본 선 | 11월 23일(목) 오후 4~7시 미래관 DLC

접수방법

- 1. 이력관리시스템에서 '한성인 프레젠테이션 대회' 검색 후 신청
 - 2. 팀으로 신청 가능(인원 수 제한 없음 발표자 2인 이상도 가능)
 - 3. 선착순 35팀으로 접수 제한
- * 대회 참가 시간과 수업 시간이 겹칠 경우 출석 협조문 발급 가능

시상내역

최우수상 1명 상금 80만 원 비교과 포인트 100점
우수상 2명 상금 각 30만 원 비교과 포인트 80점
장려상 3명 상금 각 10만 원 비교과 포인트 60점

*예선 참여 비교과 포인트 40점/ 단순 방청 5점
*심사결과에 따라 시상 내역 및 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정주제 (택1)

01.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화두이다. 많은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오히려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자신의 전공과 관련하여 취업(또는 창업)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할 계획인지) 프레젠테이션을 해 보시오.
02. 복잡한 일상과 넘쳐나는 물건의 홍수 속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을 두고 살아가는 '미니멀 라이프(minimal life)'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해 보시오.
03. 최근 우리나라에서 "젠더폭력"이 큰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였다. '데이트폭력', '여혐', '남혐' 등의 문제가 워낙 수위를 넘어 범죄의 양상을 띠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분석하고,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해 보시오.

*자세한 내용은 사고와 표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http://writingcenter.hansung.ac.kr>)



흐릿한 역사, 선명하게 돌아오다

지난 9월 19일, 국외소재문화재단은 '분청사기상감 이선제 묘지(墓誌, 죽은 사람의 인적 사항이나 무덤의 소재를 기록하여 묻은 판석이나 도판) 1점을 일본인 소장가로부터 기증 받아 국내로 들여왔다.

이 묘지의 주인인 이선제는 조선 전기에 활약했던 역사가이자 정치가, 지방 토호로 이 묘지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그 행방이 묘연했던 인물이다. 그렇다면 이선제는 정확히 어떤 인물이고, 왜 지금이야 그의 묘지가 한국에 돌아올 수 있었던 걸까?

이선제, 그는 누구인가

이선제(李先齊, 1390~1453)의 호는 필문이며 본관은 광주(光州)다. 그는 세종 원년에 급제하고, 이후 30년 이상을 관직에 있었다. 이수경(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학예연구관은 "이선제의 관직 생활은 활동 내용에 따라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기간동안 이선제는 사관으로서 『태종실록』과 『고려사』를 편찬했으며, 검도관으로 활약하는 등 학자로서 집현전에 몸담았다.

전반기 학자로서의 활동기라면, 후반기는 정치적 활동기였다. 이선제는

10년 동안 6조의 고급관료인 참판으로 그리고 강원도 관찰사로의 직무를 수행했다. 그는 관직생활을 하면서 직접 체험한 것과 집현전 재직 당시 살펴 봤던 옛 제도를 바탕으로 각종 정책 상서를 올리는 등 활발한 정치적 움직임을 보였다.

이 연구관은 "이선제가 강원도 관찰사로 있을 때, '여름에 진상하는 낱고기는 운반 과정에서 부패하기 쉽다'고 상소를 올린 후부터 석빙고에 얼음을 저장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선제는 관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지역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였다. 이선제가 있던 당시, 광주는 광주목에서 무진군으로 강등되어 있었다. 이 연구관은 그 이유에 대해 "광주사람이 애첩을 가로챈 광주의 목사(牧使)를 구타한 사건 때문"이라며 "당시는 관리를 폭행한 강상죄가 삼강오륜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매우 무겁게 취급되던 시절이기 때문에 고을의 호칭이 강등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선제는 광주의 원로들과 함께 임금에게 상소하여 무진군을 광주목으로 복귀시켰다. 또한, 그는 '광주 함약'을 실시하여 고을의 풍속을 바로잡는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묘지 반환 작전

이선제는 30년 넘게 다양한 업적을 쌓은 인물이지만, 최근까지 그 행적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 이 연구관은 "이선제는 그의 5대손인 이발과 이길 형제가 정여립 모반 사건이라고 불리는 '기축옥사'에 연루되어 멸문의 화를 당하면서, 300년 동안 출몰 연대마저 알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잊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다 1998년, 분청사기에 상감기법으로 만든 필문의 묘지가 일본으로 1차 밀반출 시도됐고, 이 과정에서 공항 문화재감정관실은 묘지를 필사해 상세한 자료를 남겼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이선제에 대한 정보가 학계에 전해졌고, 묘지의 소재를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게 밀반출을 막은 듯 했지만, 당시 밀반출 시도가 범외 교역에 성립하지 않아 압류조치는 물론, 수사기관에 신고조차 할 수 없었다. 한 달 뒤, 이선제 묘지는 문화재 밀수단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숨겨져 일본으로 밀반출돼 행방을 알 수 없게 됐다.

그 후 2014년 10월, 재단은 일본지역 문화재 유동실태를 조사하던 중 종교미술시장에 매물로 나온 이선제 묘지를

발견했다. 재단은 묘지의 출처를 확인했고, 밀반출되기 전에 기록한 필사본과 이를 비교해 묘지가 불법반출품임을 알 수 있었다.

이후 재단은 일본인 고미술상을 찾아가 묘지를 매물로 내놓은 일본인 소장가를 만날 수 있었다. 당시 암 투병 중이었던 70대 후반 소장가는 대기업을 은퇴 후 고미술품을 수집하다가 묘지를 입수했을 뿐, 그것이 불법반출품이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소장가가 사망한 후 재단은 소장가의 유족인 도도로키 여사를 다시 만나 묘지의 국내에 기증 반환한 것을 설득했다. 도도로키 여사는 이선제 후손들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배려하고, 나아가 한일 양국의 우호 증진을 위해 묘지를 무상으로 기증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2017년 8월, 묘지는 무사히 고국 땅을 밟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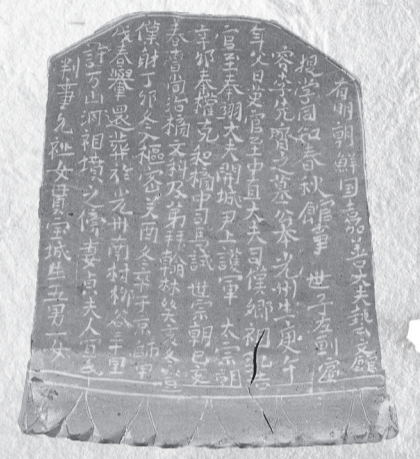
강임산(국외소재문화재단 협력지원팀) 팀장은 "그 당시 도도로키 여사는 묘지 기증을 통해 한일 간 신뢰와 우정이 더욱 두터워지고, 한일 관계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그렇다면 어렵게 환수한 필문의 묘지는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 필문

의 묘지는 사료적 가치와 도자기의 문화재적 가치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강 팀장은 "이선제는 조선전기 호남을 대표하는 실존인물인데 그동안 정확한 자료조차 파악할 수 없었다"며 "필문의 묘지에는 그에 대해 소상히 기록돼 있기 때문에 사료적 가치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조선전기 묘지가 희소하고, 전문가들은 이선제의 묘지가 현존하는 조선전기 묘지 가운데 그 가치가 월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kshkajasa@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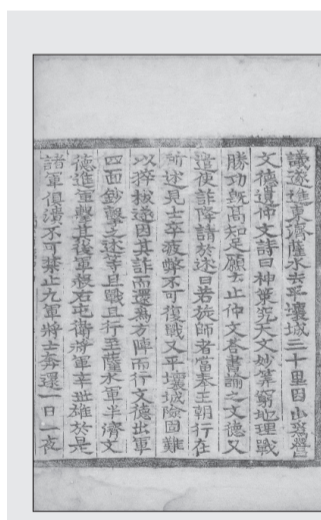
역사 카테일

문학, 역사와 결혼하다

만약 길거리의 누군가에게 돌연 "문학이 역사와 분리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진다면, 심중팔구는 쉽사리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말을 흐릴 것이다. 그 두 개념이 서로 분리 가능할까, 불가능할까에 대해 마땅히 이렇다 할 답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없다고 할지라도, '문학'과 '역사'가 결합해 서로의 일부분으로 기능하고 있는 작품은 존재한다. 바로 고려에서 창작된 '여수장우중문시(與隋將于仲文詩)'가 그것이다.

여수장우중문시는 한국인이 아니라 누구나 알고 있는 고려의 명장 '을지문덕'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작품이다. 이는 각각 5자의 한자로 이루어진 4개 행을 가진 '오언사구(五言四句)'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한시(漢詩) 중에서 최고(最古)의 오언시이기도 하다. 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 그 유명한 살수대첩(薩水大捷)에서 이 시가 탄생했기 때문이다.

살수대첩은 을지문덕이 수나라의 군대(이하 수군)를 평안북도에 위치한 청천강에서 격퇴한 전투다. 당시 을지문덕은 하루에 7번씩 수군과 전투를 치르고, 거짓 후퇴를 반복하며 수군을 지치게 했다. 결과적으로 수군은 평양성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전투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이 상황에서 을지문덕은 수군을 통솔하던



작품 : 여수장우중문시
연도 : AD 612
작자 : 을지문덕

대장군 우중문에게 '여수장우중문시'를 보낸다. 고색천연하게 우중문의 지략에 탄복하는 이 시를 읽은 우중문은 을지문덕에게 기만당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서둘러 회군하지만 결국 당시 '살수'로 불리던 청천강을 건너는 도중 고려군에게 처참하게 도륙당한다고 한다.

사실 여수장우중문시 자체의 문학적 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다. 함축의 미나 미려한 비유 같은 것이 없는 투박한 '장수'의 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규보가 이 시를 "후대에 따를 자가 없다"고 평할 만큼 높이 평가 받고 있는 것

'여수장우중문시'는 고려의 대표적인 명장으로 손꼽히는 을지문덕이 창작한 한시다. 시기적으로 당나라 이전에 창작된 고체시이며, 5언4구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1구와 2구의 한문이 각각 대구를 이루고 있고, 1·2구와 3·4구의 상·하강이 대비되는 역양법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전해지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오언시이며, 문학적인 미는 다소 떨어지지만 무인 특유의 기개가 느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시가 역사적인 사건과 함께 사료되기 때문이다. 대국(大國)의 군대를 궁지로 몰아넣고, 시 한 수로 품위있게 대장군을 우롱하는 장면은 우리에게 일종의 카타르시스마저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혁명(사고와표현교육과정) 교수는 "문학적인 위상은 높지 않으나, 역사적 배경과 함께 큰 의미를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여수장우중문시와 살수대첩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 역사가 된 문학과 문학이 된 역사, 우리 역사의 한 시대를 장식한 이 시의 가치를 논할 때, 단순히 '문학'만을 논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 될 것이다.

이후형 기자
ljh@hansung.ac.kr

김기자의 안고픈 양산 잡학사전

당신이 몰랐던 세종대왕의 세 가지 사실



《편집자주》

이 기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가상으로 설정한 인물입니다.

- 김 기자 김막알잡의 진행자
- 한 씨 세종대왕 덕후
- 글 씨 세종대왕의 '세'만 들어도 달려오는 남자
- 날 씨 세종실록을 읽기한 여자

[김 기자]: 이번 김막알잡은 길고 긴 황금연휴의 마지막 날이었던 한글날을 기념하여 세종대왕(이하 세종)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한글날은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세상에 퍼낸 것을 기념하고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날인데, 세종과 관련한 다른 기념일이 있을까요?

[한 씨]: 한글날 말고 또 다른 기념일이 있는데요. 바로 스승의 날입니다. 그 유래는 195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청소년적십자단원들이 자신의 은사를 찾던 것을 시작으로 스승의 날을 제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어요. 1963년, 청소년적십자 중앙학생협의회는 그 의견을 받아들여 '은사의 날'을 제정했고, 이듬해 '스승의 날'로 명칭을 바꾸고 날짜를 5월 26일로 정했어요.

그리고 다음해인 1965년에 5월 15일로 날짜를 재조정했어요. 한글을 창제한 '겨레의 가장 큰 스승'이라는 의미에서 세종의 탄신일을 스승의 날로 지정해 사용하고 있는 거죠.

[글 씨]: 세종과 관련된 기념일도 있지만, 충북 청주시는 세종과 관련된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축제를 기획해 진행하고 있어요. 세종 26년, 눈병으로 고민하던 세종은 흥미로운 보고를 들었어요. 청주 조정리라는 곳에 알싸한 맛의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세종은 그 곳에 행궁을 짓고 머물면서 병을 치료했고 훈민정음에 대해 연구했다고 해요. 이를 모티브로 청주시는 매년 5월이면 '세종대왕과 조정약수축제'를

진행하고 있어요.

[날 씨]: 우리는 세종의 업적을 알고 있는데 사실 그도 흑역사를 만들 뻔 했어요. 세종 4년, 일본 국왕이 조선에 사절단을 보낸 적이 있는데, 사신단 대표가 세종에게 조선의 대장경을 달라고 요청했어요. 그 대장경이 바로 팔만대장경판이에요. 사신의 요청을 들은 세종은 대장경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팔만대장경판이 일본에 넘어갈 위기에 처한거죠. 다행히 세종은 대장경을 바로 넘겨주지 않았어요. 그후 세종 6년, 일본의 대규모 사신단이 토산물을 바치며 다시 대장경을 요구했는데 결국 거절당하자, 이들은 돌발행동을 벌였어요. 사신 2명이 단식을 시작했거죠. 이에 세종은 대장경을 내어주는게 어떻겠냐고 신하들에게 물었는데, 거센 반대에 부딪혀 대장경을 넘기지 않았다고 해요.

[김 기자]: 역시 세종은 계속 까도 끝이 없는 양파같은 위인이네요. 다음 김막알잡은 더 양파같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김수현 기자
kshkajasa@naver.com

의화정

‘올로라이프’와 우리의 미래

올로(You Only Live Once)의 약자로 당신의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 번뿐인 인생’, ‘순간에 충실하자’, ‘내가 즐거운 소비’ 등 현재 지향적인 ‘올로라이프’가 빠르게 확산되는 분위기다.

얼마 전 근로장학생과, 아르바이트로 바쁜 학생에게 왜 돈을 모으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뜻밖에도 해외 배낭여행과 미용사, 과거의 기억과는 판이한 그 대답이 자못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당당하기까지 하다.

한편 올로라이프가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철없는 행위, 충동적이며 소비 지향적이라는 기성세대들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오늘의 인내와 희생이 내일의 풍요를 가져

온다는 것을 만고의 진리로 여겼던 기성세대들의 사고로는 부질없고 철없는 행동으로만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그때의 삶과 지금은 확연히 다르다. 취업과 정년이 보장되었던 산업화 시대와 다르게, 지금의 20대들은 픽미(Pick me) 세대라고 하며 불안정한 일자리, 학자금 대출 상황, 기약 없는 취업준비, 치솟는 집값에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거나 기약 없이 미룬다는 ‘삼포세대’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올로라이프를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현실을 회피하거나 목표를 잃어 흥청망청 오늘을 소비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다. 올로라이프는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고 자기주도적인 행복을 찾는 행위이다.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을 중시하여 생각, 지식, 경험의 폭을 넓히고 오늘의 행복을 찾아 내일의 행복으로 연결하는 것이며, 불안정한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미래 지향적인 선택이기도 하다.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도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미래성을 이해하고 현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올로라이프 현상을 ‘남들이 하나까’, ‘그렇게 하는 것이 쿨해 보이니까’, ‘나도 오늘을 즐기는 것이 좋아’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래를 위해 현재의 미래성을 찾아가는 것, 오늘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나에게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발전시켜서 질적 성장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신현덕(상상력교양교육원) 교수

기자수첩

행동하지 않는 자, 주권을 논하지 말라

올해 초, 개강 전부터 학교 SNS가 떠들썩했다. 수강신청에 대한 문제였다. 이에 학생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학교와 의견을 조율하고자 총학생회는 지난 2월 21일 낙산관 대강당을 빌려 학생 간담회를 열었다. 그러나 SNS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놓던 것과는 다르게 간담회에 참여한 학생은 40명 정도에 불과했다. 결국 수강신청에 대한 안건은 큰 개신사항 없이 구멍이 담 넘어가듯 어쩔쩔 넘어가버렸다.

이번 학기 초에도 비교과 포인트 제도 변경, 신규 출결 시스템 도입 등 여러 변화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학생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여론이 일었고, 불편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비교과 포인트 제도 변경’에서도 불만사항은 나타났다. 그도 그럴 것이 학교가 방학 중에 SMS를 통해 ‘비교과 포인트 제도가

변경됐으니 세부사항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일방적으로 통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변경 대상자인 16학년 이전 학생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다. 그렇다고 학교가 이를 반복하는 일은 없었다.

위와 관련해 취재했을 당시, 담당자에게 조심스레 ‘학생들의 불만이 있을 것 같다’는 질문을 했다. 그러나 돌아온 답변을 듣고 난 후에는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다.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해도 학생들의 관심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부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SMS 서비스를 스팸 처리해두어 문자가 발송되고 있으며, 그 비율이 30%에 이른다. 또한 학교에서 제공하는 여러 강연, 프로그램 등에 참석하는 인원도 정원의 절반이 채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정원이 찬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담당자가 프로그램 참여 학생에게 전날 안내 전화를 했는데도 행사 당일 무단 결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담당자는 “이번에 시행한 비교과 포인트 제도 변경 대체 강좌의 수강 대상자는 2700명이었지만, 그중 참가자는 온·오프라인을 합쳐 150여 명밖에 안 됐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우리학교 학생들은 SNS를 통해서도 여러 의견을 내놓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침묵한다. ‘학교의 주권은 학생에게 있다’는 말이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학교의 주권이 우리 학생들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번처럼 학교에 주권이 학생에게 있다는 말이 회의감이 든 적이 없다.

김종민 기자 whdals148@naver.com

낙산에 올라

한국인의 매운맛 빼주세요

한국인의 매운맛. 요리프로그램이나 먹방, 식품 광고에까지 흔하게 쓰이는 문구다. 한국인은 매운맛을 좋아하고 잘 먹는다. 생각이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엽기떡볶이’나 ‘불닭볶음면’처럼 ‘더 맵다’는 것을 앞세워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상품들도 있다. 애초부터 떡볶이와 볶음면 모두 매운 고추가 들어가지만 많은 사람이 더 맵고, 자극적인 맛을 원하니 ‘매운맛’을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지만 매운 음식을 못 먹는 한국인도 있다. 슬프게도 내가 바로 그 한국인의 매운맛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 중 하나다.

이 ‘한국인의 매운맛’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음식집에 가도 주문할 수 있는 메뉴가

적다. 김치나 고추장이 베이스로 사용된 음식, 청양고추로 국물을 낸 음식은 모두 경계 대상 1호다. 이런 음식을 하나씩 선택지에서 배제하다 보면 남는 건 치킨마요 같은 느끼한 음식이나 계란찜 같은 순한 음식이다. 치킨마요나 계란찜도 먹고 싶지 않은 날에는 억지로 매운 메뉴를 시키며 ‘청양고추는 빼주세요, 덜 맵게 주세요’ 하며 한 끼를 먹기 위한 사투를 벌여야 한다.

하지만 고추만 빼진 음식에선 잡내와 비린내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래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고추를 뺐을 때 매운맛 뿐 아니라 다른 맛도 변한다는 걸 모르거나, 알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식당은 매운 음식을 못 먹는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오히려 더 매워질수록 맛있다는 평가를 받고, 더 많은 손님이 찾아온다. 맵지 않은 맛을 찾는 사람을 위한 요리법을 고민하지 않는다.

안 매운맛을 찾는 이들이라고 심심한 음식을 좋아하는 건 아니다. 매운맛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각적인 맛을 즐긴다. ‘한국인의 매운맛’을 모르는 우리가 늘 듣는, 안 매우면 무슨 맛으로 먹느냐는 질문은 잘못됐다. 안 매운 메뉴들이 그것밖에 없는데 뭘 어쩌란 말인가. 앞으로 이런 질문을 하려거든 식당에 물어라. 왜 안 매운 메뉴들은 건강식이나 저염식 같나요? 맵지 않으면서도 맛있는 음식이 필요한데요.

김태은(한국어문 4)

· 삼 학 송 ·

긴 터널을 지나서

장장 10일이나 이어진 추석연휴가 드디어 끝났다. “10일이나 쉬었는데, 좋지 않으나?”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물론 좋았다고 대답할 수 있겠지만, 실은 대학인론에게 있어서 이번 추석연휴는 그다지 유쾌하지만은 않은 시간이었음을 고백한다. 대학인론의 취재는 반드시까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취재원에게서 정보를 획득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에 따르면 10일이나 되는 연휴는 다른 말로 해서 취재원들의 연휴요, 기자에게 있어서는 취재의 ‘올스톱’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신문은 3주에 한 번씩 발행되므로 이번 10일의 휴식은 다시 말해 다른 때보다 취재 일정이 반 토막이 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굳이 연휴가 아니더라도 취재활동에는 언제나 애로사항이 꽃피기 마련이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비유하자면, 취재는 아주 작은 촛불을 가지고 어둡고 긴 터널로 들어가서, 손으로 주변을 주섬 주섬 더듬으며 출구를 찾아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터널을 지나다 보면 가끔은 넘어지기도 하고, 길을 헤매이기도 한다. 이처럼 취재라는 것은 당장의 단편적인 정보는 존재하나, 그것으로 실제에 접근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착오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 취재원이라도 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이야기는 훨씬 쉬워진다. 하나 좋은 취재원을 만나는 것은 군대에서 좋은 선임을 만나는 것처럼 오직 천원에 달린 일이며, 그마저도 민감하거나 부정적인

문제를 취재할 때는 애초에 기대를 품지 않는 것이 심신건강에 좋다. 학내외를 취재하다보면 답변 거부나 지연, 떠남기기는 양반이고, 기자에게 ‘어린 학생이라고’ 무례한 언행을 일삼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한다. 많지는 않지만 간혹 정말 악다구니를 퍼붓고 싶은 사람마저 있을 정도다.

이런 실정에 연휴까지 겹쳤으니, 이번 호의 취재는 우리 기자들에게 유달리도 ‘어둡고 긴 터널’이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급박한 일정에 쫓기듯이 취재를 진행했고, 실제로 보도면 같은 경우는 일정상 취재가 불가능한 아이템이 많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타협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조금 위안을 얻자면 어쨌든 이번에도 기자들이 일심불란하게 그 긴 터널을 지나왔고, 썩 만족스럽지는 않아도 언론으로서 기본적인 결과물을 내뿜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거처온 ‘터널’이 길었다고 해서, 이것이 터널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성대신문>이 계속 발행되는 한, 터널의 끝은 곧 새로운 터널의 시작인 것이다. 또한, 내가 신문사를 나간다고 해도 그것이 터널의 끝은 아닐 것이다. 비단 기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모두 제각기 벽을 더듬으면서까지 통과해야 하는 깜깜한 ‘터널’이 있을테니까 말이다. 긴긴 연휴의 끝, <한성대신문>에게도 독자들에게도 어쨌든 낯설기까지 한 이번 휴식이 새로운 터널을 지나 는 원동력이 되기를 빌어본다.

이주형 편집국장

낙산만평

유은강(영문 2)



성북동 문화재 야행

저 멀리 기억하는 밤

2017. 10. 27(금) ~ 28(토)
18시~22시 성북동 일대

문의 | 성북문화원 070-8670-1635 주최 | eb성북 주관 | 성북동 문화재 야행 민간사무국 후원 | 문화재청, 성북문화원, 서울특별시

보이지 않기에 더 특별한 당신의 감성

제32회 한성문학상 현상공모

모집기간 2017년 9월 25일 ~ 11월 10일 오후 6시까지

참가대상 본교 학부 재학생

주 제 자유 (주제에 제한이 없음)

제출형식 소설 : 200자 원고지 70매 내외
시 : 5편 이상

제출방법 hansungnews@gmail.com
(e-mail로만 접수 가능)

제출사항 응모작 / 참가신청서
(교내 홈페이지 '한성공지'에서 다운로드)

발 표 한성대신문 529호 (12월 4일 발행 예정)

시상내역 단편소설 : 60만 원 및 상패
시 : 40만 원 및 상패

문의사항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이주형 편집국장 010-9286-7531

※ 제출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다른 공모에 입상, 발표 사실이 없는 순수창작물만 응모할 수 있으며, 중복 투고, 대필 등의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상자격을 박탈함과 동시에 상금을 몰수합니다. 또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당선작이 없을 시 가작만 시상합니다.